육계가격 폭락

— 중부지역 육계업자 확대회의에서 심각한 가격하락 예측 —

南 斗 熙
(본지 편집부과장)

「육계가격 폭락」의 불안감이 양계업계에 적신호를 올리고 있다.

작년 추석이후 하락한 육계가격이 금년초부터 서서히 상승해 안정세를 찾는 것같더니만 성수기를 앞두고 4월 하순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4월 30일 현재 출하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900원 또는 지역에 따라 그 이하에 거래되고 있어 생산자들을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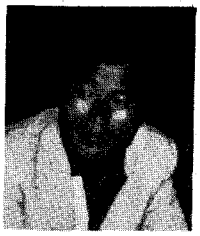
본회는 현재 농수산부 사료과의 협조를 받아 매 10일 간격으로 육계사료 생산량을 신속, 정확하게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는 전기사료 생산실적이 1만2천톤(전월대비 26.4%증가)을 상회하여 위험수위에 육박해 본회 육계분과위원을 위시한 전국의 육계 생산자들에게 입추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4월 육계전기사료 생산추정 2만4천여톤(전월대비 30% 증가)

그러나 본회 회원과 기존의 육계 생산자들의 입추조절에도 불구하고 타업종에 종사하던 신규업자들의 무계획적인 대거 참여로 3월의 육계전기사료가 전월대비 49.5%가 증가한 1만8천7백80톤(작년 동월대비32.2% 증가)이 소모되는 한편 4월 잠정집계는 전월대비 30%가 증가한 2만4천4백여톤 (작년동월 대비 50% 증가)이 될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볼때 육계업이 또 한바탕 어려운 가격폭락의 늪속을 헤맬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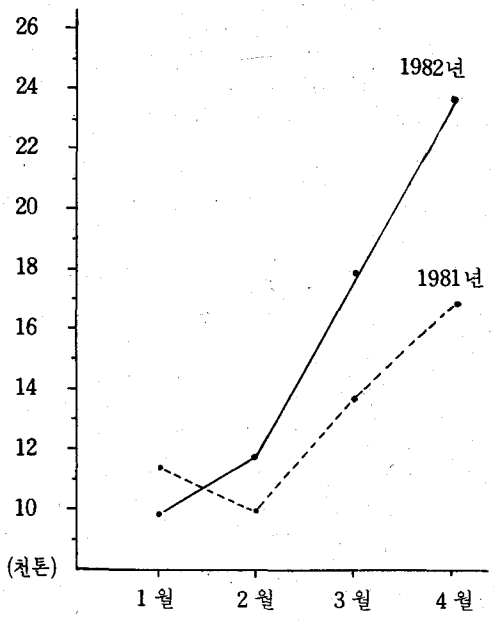
(신 정 일)

(공 용 구)


(박 연 수)

(장 연 근)

〈그림 1〉 '81/'82 1～4월 육계전기사료 생산량



비수요기에 보온덮개, 급이기, 급수기 품귀 상태

일부 채란계농장에서 3～4월에 산란계초생추를 입식하면서 병아리때 튼튼히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육계전기사료를 급이하는가 하면, 육계세미 출하농장에서도 가격이 일부싸기 때문에 45일령 출하시까지 전기사료만 먹여서 출하하는 등의 편법도 있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의 육계전기사료 생산량의 잠정집계가 2만4천톤을 상회한다는 수치는 작년 여름성수기 복병아리때 소비된 2만1천톤에 비하면 그야말로 가공할 물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비공식적인 루트에 의한 왕병아리가 시중에 많이 범람하고 있으며 비 수요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용 대나무와 보온덮개가 가을철 성수

〈표 1〉 년도별사료생산량비고

년도별 / 생산량및대비 / 월별	'81		'82		
	전기사료 생산량	전월대비 증가량(%)	전기사료 생산량	전월대비 증가량(%)	전년도 동기간대비(%)
1	11,747	−17.2	9,934	−18.7	−16
2	10,370	−11.8	12,557	+26.4	+21
3	14,202	+36.9	18,780	+49.5	+32.2
4	16,172	+13.8	(추정) 24,414	+30	+50.9
5	20,793	+28.5			
6	20,774	− 0.1			
7	20,772	− 0.1			
8	20,448	− 1.6			
9	19,281	− 5.8			
10	17,815	− 7.7			
11	14,241	−20.1			
12	12,210	−14.3			

(정 태 희) (정 지 훈) (이 형 수) (김 월 식) (장 세 훈)

기 만큼이나 장사가 잘되고 있어 간접적으로 브로일러의 초생추 입식수수가 증가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부터 일부지역 에서는 모이통의 주문이 쇄도해 생산공장에서 선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금을 주고도 며칠씩 기다렸다가 물품을 인도받고 지난 4월중에는 급수기를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비공식적인 추측을 통해 5월 하순부터 육계의 생산자가격은 급하락할 것이며 혹 일반 경기의 부양책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호전되 30%정도 소비가 신장이 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생산비는 고사하고 6월달 경에는 kg당 600원 이하를 밑도는 가격의 육계업계의 공황이 예상된다.

육계경기 4개월을 주기로 변화

지난 79년부터 육계가격의 변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4개월을 주기로 好況·不況이 변화하였는데(도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공교롭게도 80년 여름 복철에 가격이 나빴으며, 81년에는 이례적으로 1～2월이 좋았고 3월에는 가격이 매우 나빴다(이때 본회는 축협을 통해 수매비축을 시도하였으나 바로 가격이 상승해 중단한 바 있다) 그후 년중 가격이 좋았다가 9월 12일을 고비로 가격이 급락하여 작년 하반기 육계생산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

그동안 육계산업은 가격이 높으면 철새처럼 몰려와 너도나도 생산만 하면 된다는생각에서 병아리를 입추해 무계획적으로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비경제적으로 생산해 출하시기만 맞추면 수지가 맞아 재미를 보다가 불황이 닥치면 협회로, 축협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매비축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3～4개월 지나면 다시 잠잠해 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일부 뜻있는 업자들의 사명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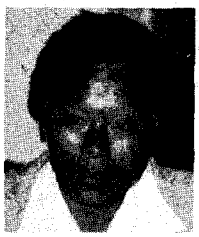
그래서 금년초 협회 육계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별 정보교환 및 전망을 검토하고, 가격전망에 따른 입추량 조절과 대책을 논의하여 당면과제를 토의하는 중부지역 육계업자 월례회의를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4월 30일 오후 본회 화의실에서 개최된 중부지역 육계업자 확대회의에

〈표 2〉 년도별 육계가격추이

년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979					▨	▨	▨	▨					600원/kg
1980	▨	▨	▨	▨					▨	▨	▨	▨	750원/kg
1981	▨	▨			▨	▨	▨	▨					900원/kg
1982	▨	▨	▨	▨	〈?〉								900원/kg

▨ 호황 □ 불황



(이 태 섭)

(원 승 재)

서 논의된 지역별 정보교환 및 전망 검토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규업자들 대거입추로 물량증가

공용구(대전계우회) : 시세는 900원선인데 20~30원 정도 하향 거래되고 있다. 입추사항은 5월중에 본격적인 입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가계에 의한 소비는 부진하고, 영업집 소비는 양호한 편이다. 생산자들의 단합으로 불황이 오면 막연한 기대를 하기전에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입추를 전면 중단한다. 신규업자들의 증가로 외부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박연수(양계협회 전북지부) : 기존업자들은 40~50%정도 입추를 했지만 신규업자들의 참여로 지역의 전체물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기존업자들은 세미로 1,000원선을 유지하나 신규업자들은 대닭 870원에서 920원까지 내고 있다. 대규모 농장에서 20~30%정도 입추하고 있으며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잘 단합되어 있어 8개 농장이 돌아가며 all in-all out을 하고 있다. 또 협회회원 시장점유율이 80%로 잘 단합되어 있어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에 왕병아리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

부화장, 사료회사에서도 5월중순 가격폭락예상

이태섭(안양분회) : 입추는 부진하고 소비는 무난한 상태이다. 부화장 관계자(종계입식 및 병아리판매상황)와 사료회사관계자(사료생산량 추정)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두 관계자 모두 5월 하순부터 시세가 급하락 할 것을 예견해 입추는 계속 신중히 할 것이다. 안양지역의 경우 다른 모든 업종이 사업이 안되는데 이웃의 양계장이 잘 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신규로 양계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정태희(광주분회) : 기존업자 및 신규업자들 모두 입추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하물량이 잘 빠지고 있다. 가격은 800원에서 850원 사이이다.

정지훈(의정부계우회) : 지역적인 특성으로 세미출하가 많다. 현재 물량은 없는 상황이고 일부 부화장에서 병아리 물량이 체화되는 듯 3천수를 주고 2천수 값만 받아가고 있다.

이형수(경북지부 육계분과) : 지역 회원들은 입추를 중단하고 계사소독을 하고 5월중순 입추준비를 하고 있다. 일전의 경북, 대구일원에 ILT 감염계 발생소식이 매스콤에 보도되자 단체에서 행락시 주문한 닭고기를 취소하는 사태를 빚는가 하면 일부 소비자는 병걸린 닭을 도계장에서 잡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다. 실제 피해 1천수 정도로 생산자들은 많은 곤욕을 치루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정말 아쉽다.

장세훈(천안계우회) : 사실상 물량은 많은 것 같지 않고 평택지역은 자체에서 소모가 잘 되고 있다. 생산자들이 닭을 출하 못해서 이곳 저곳 전화 거는 일은 없다.

원승재(포천분회) : 부화장에서 병아리가 안나올때 경기가 좋다. 생산자가 피해를 본 후에나 경기가 좋다는 얘긴데 문제점이 많으며, 항간에 떠도는 6월 600원, 7월 700원, 8월 800원의 시세예측이 맞을 것도 같다.

신정일(김포계우회, 본회이사) : 육계 생산자들이 위탁판매를 통해 수당 10원 정도의 일정액을 적립해 김포지역의 창구일원화를 하고 있는데 소비가 너무도 위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병아리 생산량, 사료소비량, 시장상황 등을 종합해서 볼때 7월 까지는 육계가격의 하락은 기정사실이며 특히 6월중의 가격은 실로 심각한 상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입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